

## 국방품질관리소, 민·군 규격통일화 종합 발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구자들의 열의와 노력에 대해 치하하였다.

발표내용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의 기계요소류 규격통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부자재류 규격통일, 한국기계연구원의 수공구류 규격통일, 전자부품연구원의 통전장비류 환경시험 조건분석 및 규격통일,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국방품질관리소의 국내·외 규격조사분석 및 건전지류 규격통일 등 7개 과제였다.

**국방** 품질관리소(소장 오치운)는 지난 7월 28일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및 관련 연구기관과 업체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9년도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종합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품질관리소는 '98년 4월에 제정된 민·군겸용기술촉진법에 의거하여 '민·군 규격통일화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97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산하의 '군사규격개선반' 활동에서 국방규격과 표준의 개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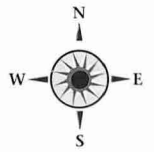
이 날 발표회에서는 '99년 8월부터 '00년 7월까지 수행한 국방규격의 정비 및 연구과제 실적을 발표 및 평가하였으며 향후 국방규격의 개혁방향 및 마스터플랜도 제시하였다.

오치운 품질관리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국방규격의 민수규격 전환이 아니고, 민·군간의 기술이전 촉진과 상용품 채택 확대를 통한 국

연구결과 도출된 결론은 민수와 국방 규격의 질적인 통합으로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상용품 채택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방예산의 절감과 국가표준체계를 조기에 확립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국방연에서 발표한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 연구는 우리 군의 상용장비 채택에 있어 정책기초 자료로의 활용과 그에 따른 군수지원체계 정책방향 및 제도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는 경제력, 첨단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총력체제로의 전환 및 하나의 표준을 통용하여 시장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체계가 미정립되어 부처별로 별개 추진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잔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은 필연적이며, 이 날의 평가 및 발표회를 계기로 국방부 내에서는 물론이고 정부 각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으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에 상호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 공군, Cyber 항공박물관 개설

## 세계의 군사정보, 항공관련 각종 학술논문 자료 제공

**전세계** 군용기에 대한 정보를 집대성한 국내 최대의 'Cyber 항공박물관' 이 8월 14일, 인터넷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공군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airforce.go.kr)에 수천장에 달하는 전세계 군용기 사진과 항공관련 최신정보, 항공무기체계정보 등을 총 망라한 종합 데이터 베이스(Air Library)인 일명 'Cyber 항공박물관'을 구축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공군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비롯하여 세계의 군사정보, 항공관련 각종 학술논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의 항공전문 웹 사이트로서 우리 나라 항공 우주산업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다양한 사진들이 기종별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국내 최초로 4만 5천 피트(약 13,500m) 상공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성층권 모습과 유명 항공사진작가인 가쓰히코 도쿠나가(Katsuhiko Tokunaga)가 지난 4월 내한하여 촬영한 KF-16의 현란한 공중 기동 사진들이 최초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독도, 설악산 상공 등 아름다운 한반도의 4계절을 담은 진기한 사진자료를 비롯하여, 지난해 공군 창군 5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실무장 폭격시범 동영상 및 국예비행팀 블랙이글의 정교한 비행사진을 모은 특별 코너도 운영된다. 고해상도로 제공되는 이들 공군 전투기 사진은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여 선명한 사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군 군용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공군의 관심과 지원도 불 만하다. '부품국산화' 메뉴에서는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후속지원을 위한 유

지 부품중 국내 개발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품개발을 위해 관련 부품들을 공개하고 업체에서 부품개발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군수업체는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개발 추천품목들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 부품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군은 장비모집에서부터 합격자 발표·특기분류·배속지 결정·입대 후 병영생활을 동영상으로 미리 보여주는 「미리 보는 공군의 사병생활」 코너를 마련,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하는 부모님들이 가상 병영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공군 전역자 조회」 코너를 통해 전역과 함께 연락이 끊겼던 옛 전우들의 근황을 한 눈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 전우를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도 신설하여, 전역 후에도 인터넷을 통해 상호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